

# 글 읽고 쓰기의 괴로움과 부끄러움

## 한 시골출신이 책에서 얻은 깨달음

權寧彬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골 중학교를 마치고 큰 도시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시골학생에게 도시의 모든 풍경이 낯설었지만 그중에서도 큰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그의 기를 죽였다. 소읍의 국민학교나 중학교란 언제나 낮은 얼굴의 마을 친구, 소꿉친구, 골목 친구가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놀이터의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았지만 큰 도시의 그 학교는 시골학생에게 워낙 육중하고 엄격하게 느껴져 그가 숨쉬고 설 작은 공간마저 허락하지 않을 듯한 공포감마저 안겨주었다.

그 공포감이 경외감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시골학생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끈두박질쳐서 소외감으로 자리잡는 작은 사건이 있었다.

영어시간의 첫 수업이었다고 기억한다. 젊고 잘 생긴 영어선생님은 맑은 눈으로 교단 밑 학생들을 응시한 다음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인 줄을, 더욱이 蕙詩 인줄을 깨달은 것은 선생님의 시 암송이 끝나갈 무렵에서였다.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I wandered lonely as a cloud...」로 시작되는 윌리엄 워즈워드의 「수선화」였다.

겨울이면 들판에서 얼음지치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개헤엄치며 도랑치고 가재잡고 놀던 시골소년에게 있어 수선화란 꽃이름이 낯설고 구름처럼 헤매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된 시를 읽는다는 사실이 낯설고 경이로울 뿐이었다. 이 경이로움이 시골 소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감과 소외감으로 바뀐 것은 그 다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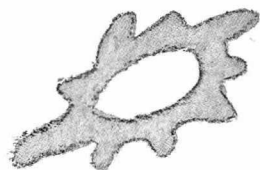
선생님의 맑은 눈빛을 보다가 시골 학생은 주위의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눈빛엔 경이로움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따분하고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늘상 들어오던, 흔하게 접하는 일상의 수업일 뿐이라는 눈치였다. 시골학생은 기가 죽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강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이고 심각한 문화적 수준 차이를 확인한 것이다.

충격에 대한 반응은 상식적으로 두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시골소년은 그 문화적 충격을 오랜동안 이겨내지 못했다. 말없고 소심한 학생이 되었고 학교가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고는 학교를 가지 않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그 자신이 워즈워드 시속의 방랑자같이 구름처럼 골목을 헤매고 시장바닥을 떠돌다간 해질녘이면 집으로 돌아갔다.

시골학생의 큰 도시 학교생활은 이런 식의 실의와 방황으로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었다. 그날도 무더운 여름 오후였다고 기억한다. 시골학생은 그날도 버터처럼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지루하고도 따분한 도시생활의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한 집안을 지나친 그는 다시 뒤로 물러서 집안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정말 우연하게도 그 집은 맑은 눈을 지닌 영어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감나무 그늘 밑에 뒷마루를 내다놓고 선생님은 두터운 책을 읽고 있었고 젊은 사모님은 수박을 자르고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도 집에서 책을 읽는다, 무더위 한여름에 책을 읽으며 방학을 보낸다, 지금 생각하면 지극히 온당하고 당연한 일이 그때의 시골 학생에게는 굉장한 발견이었고 중대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책이란 공부며 공부란 하기 싫은 것으로만 알았던 그에게 책이란 지혜를 얻는 열쇠이고 휴식의 한 방법일 수도 있고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영어로 된 시까지



암송케 하는 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시골학생은 깨닫게 된다.

시골학생은 삶의 체험을 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을 통한 지혜의 흡수라는 도시아이들의 관행적 방식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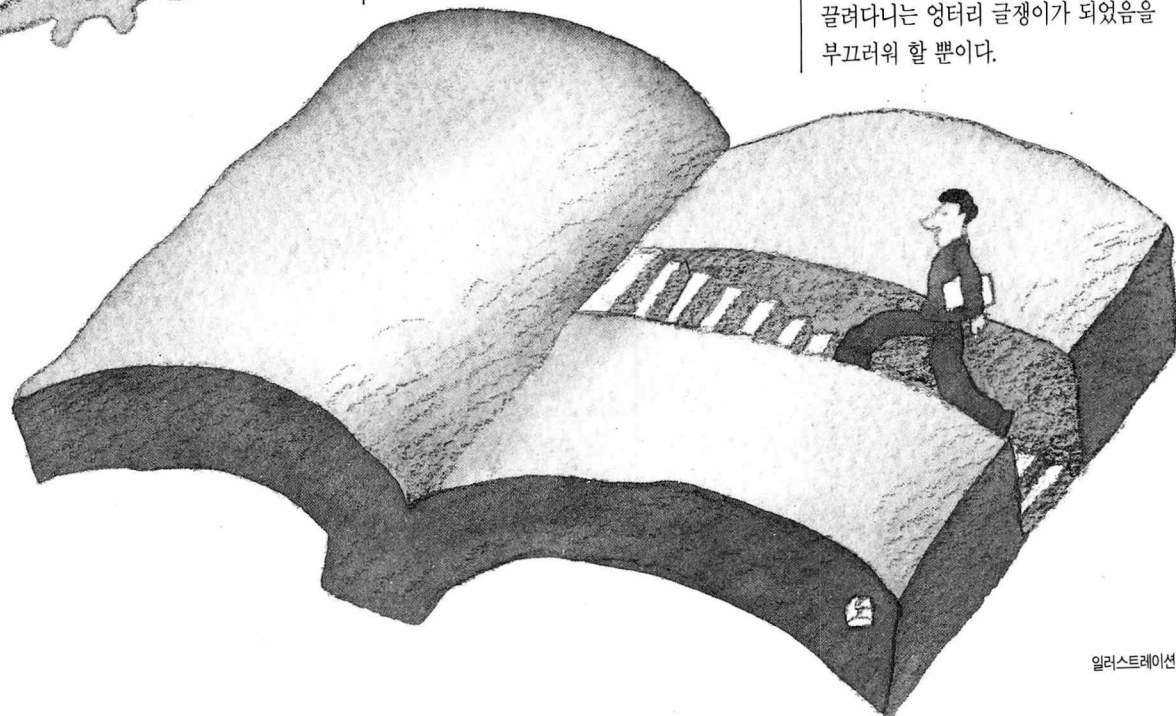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방식과 자신의 실천적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면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 또 어느쪽 방식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길인가.

소크라테스는 석공 일을 하는 아버지와 산파역을 하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다. 석수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들깨는 지혜를 가르쳤다. “먼저 사자의 석상을 만들려면 그 돌속에서 사자를 보아야 한다. 마치 돌의 뒤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 다음엔 사자를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 아들은 산파인 어머니에게 어떻게 아기를 받아내는가를 물었다. “난 정말 하는 게 없어. 단지 아이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할 뿐이야.”

책보다는 자신의 실천적 경험이 앞선다고 주장하는 莊子 天道篇의 예피소드 또한 유명하다. 齊나라 桓公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마당에는 마차의 수레바퀴를 고치는 輪工이 한가히 마차바퀴를 고치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도 모른다. 더위를 먹으면 갑작스런 행동도 나타나는

범이니까. 갑작스레 輪工은 성큼 마루에 올라 감히 환공에게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느냐고 물었다. 옛 성인이 남긴 글을 읽는다고 주인은 답했다. 그러자 바퀴수리공은 책의 무용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자신은 평생을 바쳐 훌륭한 바퀴 기술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서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바퀴를 잘 다듬는 뿐만 아니라 수레축에 바퀴를 끼워넣으면 딱딱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그 기술을 결코 말로서는 전할 수가 없었다. 언어로서는 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어느 누구에게도 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서 이미 죽어버린 옛 성인이 책을 남겨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드는 것인가. 부질없는 짓일 뿐임을 질타한 다음 주인앞을 쉿하니 떠났다고 한다.

체험보다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 깨달았던 시골학생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그 배움을 남에게까지 전파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평생을 남의 글을 읽고 책을 만들며 그리고 자신의 글을 쓰면서도 단 한번이라도 지혜의 원형을 담은 글이나 책을 써본적이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석공처럼 사자의 원형을 그려본 적도, 산파처럼 아기를 자유롭게 버려두는 지혜를 발견한 적도 없으며 輪工처럼 과감히 언어와 책의 무용론도 펼치지 못한 채 언어의 종이 되고 책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엉터리 글쟁이가 되었음을 부끄러워 할 뿐이다.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